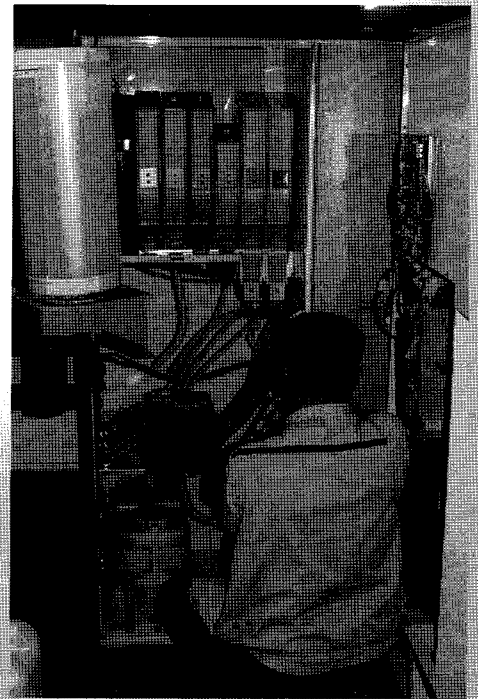


# 큰 잘못도 없이 또 만신창!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에 대한  
왜곡된 매스컴보도, 누구의 잘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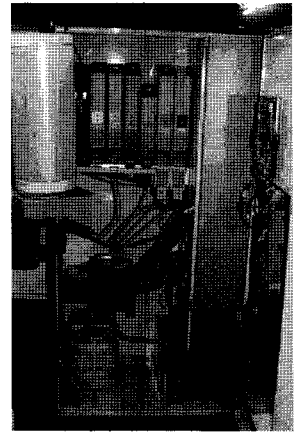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제품이 있다. 커피자판기가 바로 그것. 최근 들어서 식품자동판매기가 위생점검 후에는 큰 잘못이 없어도 언론의 뭇매를 맞는게 늘고 있다. 민주 언론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보도는 왜곡된다. 너무 선정적이고 사실무근이어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모자라 헛웃음까지 날 지경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식품자판기 점검결과를 보도하는 매스컴들은 똑 같은 작태를 따른 곳들이 많다. 산업계가 그러려니 침묵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매출은 급락하고 자판기에 대한 소비자 시선은 싸늘해지는데 참고만 있기엔 역장이 무너진다. 지난 6월 중순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에 대한 왜곡된 보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따질건 따져보자. 먼저 서울시의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보도자료를 그대로 살펴보자. 그리고 극명하게 왜곡된 SBS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많은 언론들이 SBS보도 내용 같은 보도를 일삼았다.



##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위생수준 '80점'

- 12,527대 일제점검, 무신고영업·표시사항 미기재 등 위생관리 미흡 2,499대(19.9%) 적발
- 특히 울무차에서 기준치 4~53배의 세균 검출, 원료 관리 등 대책 필요
- 하절기 자동판매기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70°C 이상 온도관리, 1일 1회 이상 내부세척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 하절기를 맞아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특히 울무차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다량 검출 되는 등 비위생적 식품자동판매기가 서울 전역 곳곳에 분포돼 있어 시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 서울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민단체와 함께 대합실, 점포, 행락지 등에 설치된 모든 자판기 12,527대에 대해 위생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2,499대(19.9%)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례는 영업신고번호·영업자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표시사항 미기재(412건), 내부 위생상태 불량(260건), 쓰레기통 미비치(206건), 고장방치(108건), 일일점검표 부착 및 점검기록 미이행·차양시설 미설치 등 기타(139건) 등 1,125건(9.0%)이었으며, 또한 폐업신고 없이 멸실된 자판기가 1,328건, 무신고 영업 39건이었다.

□ 또 식품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460건 중 울무차 7건(1.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 울무차 37건 중 7건(18.9%)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기준치(세균수 3,000/mL 이하)의 무려 53배인 16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울무차도 있었으며, 이외 커피나 기타 유자·생강 등은 안전했다.

□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자판기 가운데 1,436대를 직권말소(폐쇄)하고, 7대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1,056건은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했다.

□ 서울시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의 최종 음용온도가 70°C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해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앞으로 이번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울무차 등 국산차 검사 확대와 함께 관련협회를 통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판기 위생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 서울시내 자판기 '세균독실' ... 5대중 1대 불결

《앵커》

내 집도 이런 데 거리의 자판기 위생상태는 과연 어떻까요. 서울 시내 자판기 다섯 대 가운데 한 대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최고운 기자가 직접 챙겨봤습니다.

《기자》

무작위로 자판기를 선택해 열어봤습니다.

즉석 차가 나오는 곳 바로 아래 배수통에는 곰팡이가 등등 떠다닙니다.

[자판기 업주: (안 버린지 얼마나 됐다고요?) 4~5일어요. 청소하면서 내버렸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곳곳에 먼지에다 썩는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매일 기록해야 하는 점검일지는 언제 적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자판기.

찾물을 넣는 물통 안에는 물때가 덕지덕지 쫘었습니다.

[자판기 업주: (세척기 사용할 줄 모르시나요?) 네, 그건 사용할 줄 모르고...]

자판기 업주는 자신도 매일 마신다며 뭐가 문제냐고 되묻습니다.

[자판기 업주: 나도 매일같이 아침에 와서 (한 잔) 뽑아 마시는데 뭐.]

서울시가 시내 전체 자판기 1만2500대를 일제 점검했더니 전체 20%인 2500대가 기준치 이상의 세균 검출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5잔 가운데 1잔 꼴로 세균이 검출된 자판기 울무차는 세균이 기준치의 53배를 넘는 16만마리가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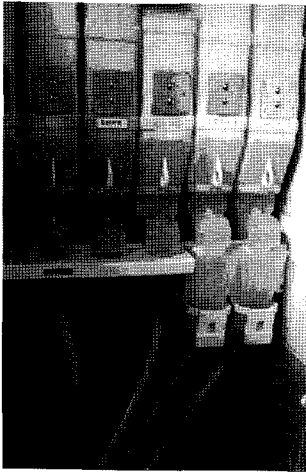
[이용호/서울시 식품안전과: 안 먹다보니까, 안쪽에 계속 이렇게 있다보니까 세균에 오염될 확률이 높지 않나.]

서울시는 적발된 자판기 가운데 1400여대는 아예 폐쇄하고 7대는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에 두 번하는 자판기 위생점검 만으로는 이런 위생불량 자판기를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언제까지 매스컴의 왜곡된 보도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SBS의 보도는 사실자재를 왜곡한 보도라는데 문제가 크다. 보도의 타이틀 카피 먼저 보자. “서울시내 자판기 ‘세균독실’...5대중 1대 불결”. 과연 그럴까? 서울시 보도자료의 메인카피는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위생수준 ‘80점’으로 오히려 칭찬의 뉘앙스가 강하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2,527대 일제점검, 무신고영업 표시사항 미기재 등 위생관리 미흡 2,499대(19.9%) 적발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2,449대의 자판기를 SBS보도는 왜곡을 했다. 보도내용처럼 이 자판기들이 진짜 불결한 위생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위반사례는 영업신고 번호·영업자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표시사항 미기재(412건), 내부 위생상태 불량(260건), 쓰레기통 미비치(206건), 고장방치(108건), 일일 점검표 부착 및 점검기록 미이행·차양시설 미설치 등 기타(139건)등 1,125건



(9.0%)이다. 또한 폐업신고 없이 멸실된 자판기가 1,328건, 무신고 영업 39건이었다. 그 외 식품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460건 중 울무차 7건(1.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세부내용에서 볼 수 있듯 진짜 위생문제가 큰 것은 울무차 7건이다. 460건의 조사대상 자판기 중 주판매 음료 커피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BS는 5대중 1대의 자판기가 매우 불결한 위생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객관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사실을 몰라 잘못 보도 한것일까? 그렇지않을 것이다. 다만 방송의 생리상 뉴스가치 측면에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선정보도를 진행한 측면이 강하다.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표시사항 미기재, 쓰레기통미비치, 일일 점검표 부착 등의 사항도 모두 포함시켜 자판기 위생불량 문제를 거론했다.

명확한 침소봉대(針小棒大)가 아닐 수 없다. 별거 아닌 걸 부풀려 보도를 해 마치 커피자판기가 치명적인 위생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도 했다. 서울시가 위생수준 '80점'이라는 표현을 한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그렇다면 위생점검을 진행한 서울시 입장은 어떨까? 서울시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자판기 업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자판기 위생문제가 과거 보다는 좋아 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언론의 ‘못매 때리기 식’의 커피자판기 위생불량 보도는 해당 매스컴사의 잘못이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그만큼 언론의 선정보도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자판기를 둘러싼 이같은 선정보도는 관행화 되어 있다. 매스컴은 뉴스가치를 높이려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한다. 커피자판기 위생상태가 좋아진 것은 뉴스거리도 안된다. 무조건 ‘커피자판기 위생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야 시청자의 관심을 끌수 있다. 이번 보도도 일단 위생이 불량한 자판기를 타깃으로 삼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화면을 내 보냄으로서 시청자들이 마치 ‘모든 자판기가 다 그렇다’는 식의 인상을 받게 했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에 자판기 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매스컴의 자판기 위생문제 보도 후 커피자판기 매출이 푹 떨어 졌다”며 “그 파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번은 소비자인척 가장하고 매스컴에서 전화가와 쌍욕을 해준 적도 있다”고 덧붙이며 “매번 되풀이되는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선정보도를 일삼는 매스컴에 있어서는 자판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는 관심 밖이다. 눈앞의 시청률에 얽매어 업계의 원성을 개의치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되풀이 되는 매스컴의 횡포를 관련업계에서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차례 태풍이 지나가면 잊혀 지겠지’라며 화가 나도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인다.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니 약자의 서러움이 이보다 더 할수 없다.

앞으로는 이런 무기력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 분명히 왜곡되어 자판기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보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강력하게 정정 사과보도를 요청하며 매스컴의 잘못된 행태를 따지고 들면 그들 역시 골치 아플 것이다. 분명히 다음에는 비슷한 사안을 보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때로는 집단적인 행동도 필요함을 관련업체가 인식을 해야 한다. 왜곡된 보도들이 자꾸 되풀이 된다면 소비자는 점점 멀어진다. 억울함은 적극적으로 하소연하고, 우리도 위생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때는 한껏 높여야 한다.

## 자판기가 동네북이냐?

제대로 된 관점으로 사안을 본 매스컴도 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커피자판기만 유독 위생문제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 지를 꼬집는 글이다. 다른 커피들은 과연 깨끗한가? 지사체들도 왜 전신행정식으로 유독 커피자판기 위생상태만 점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중도일보 이두배 기자의 속시원한 기사를 게재한다.

### 5000원짜리 커피점 두고 300원 자판기만 단속?

2011-7-29 중도일보

대전시는 28~29일 이틀간 역과 터미널, 종합병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커피자동판매기 150여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마 이후 기온 상승과 자판기 관리자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자판기 세균 증식과 원재료의 부패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28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대전시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을 따라가 봤다.

대전시 동구 고속버스터미널 안에 설치된 자판기 내부를 열어보니 사용하고 남은 분말 재료가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식품위생법상 따로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은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1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 급수통이 불량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커피제조에 사용되는 물을 채취해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는 2-3일 후 부적격판정을 받는 자판기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단속원들이 점검을 실시하는 동안 자판기 운영업주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이어졌다.

시민 송민호(45 대전시 동구 용전동)씨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고급커피 전문점의 위생 상태부터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판기업주 김성동(55 대전시 동구 용전동)씨도 "주변에 고급커피전문점이 생기면서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커피재료값은 오르고 이용자가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한잔에 5000원 이상하는 고급커피점은 그대로 두고 300원짜리 자판기만 단속하는 것은 고급커피점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대전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가운데 150여대만 실시해 생색내기용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민 이상용(27 대전시 중구 문화동)씨는 "역과 터미널,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보다 동네에 있는 자판기들의 위생상태가 더 불량할 텐데 몇 군데만 단속하는 건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이라며 "대전시내 자판기가 수천, 수만 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시는 매년 여름철 장마 이후 기온 상승과 관리자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자동판매기 세균증식과 원재료의 부패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에는 1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구성돼 감시원에게 1인당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년 주기적으로 해왔던 합동위생 단속으로 품목은 식약청의 지시가 내려오면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며 "고급커피 전문점의 경우 아직까지 단속을 한 적은 없으며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